

우리 갈보리교회를 처음 방문해주신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담임 목사와 만남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예배 후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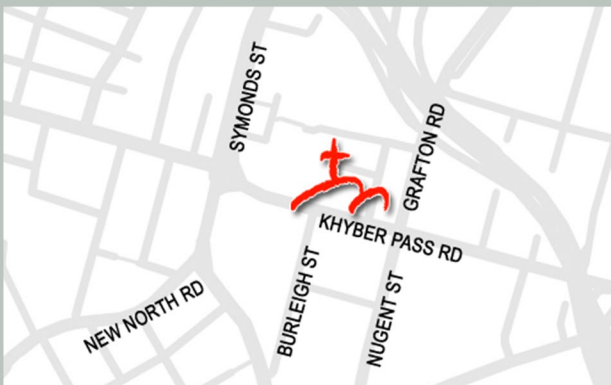
- 10월 27일은 2019년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한 해 동안 함께하시며 도와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감사하는 주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 이번 주 수요예배는 3여선교회에서 준비한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마음과 뜻을 모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헌신 예배가 되기 바랍니다.
- 다음 주일은 권사회 기도 주일입니다. 기도로 하나님 공동체인 교회를 강건하게 세우는 어머니들이 되십시오.
- 새벽 기도회가 금요일 오전 5시 30분에 찬양대 연습실에서 있습니다. 피곤한 새벽이지만 조금만 힘내어 기도합니다.
- 밀알 장애우를 위한 일일 카페가 아래와 같이 열립니다.
일시: 2019년 10월 26일 (토) 오전 11시-오후 1시
장소: 밀알선교관 (IDEA 센터: 13 Fraser Ave, Northcote)
품목: 다양한 먹거리 및 밀알 쿠키 등

[10월 교회 사역 일지]

23일(수): 3 여선교회 주관 예배

27일(주일): 감사주일

INFO



[예배시간안내]

| | | |
|---------|----|----------|
| 주일 1부예배 | 주일 | 11:20 am |
| 주일 2부예배 | 주일 | 1:00 pm |
| 청년예배 | 주일 | 3:15 pm |
| 수요예배 | 수 | 7:30 pm |
| 새벽기도 | 금 | 5:30 am |
| 유아부 | 주일 | 1:00 pm |
| 청소년부 | 주일 | 1:00 pm |

[섬기는사람들]

| | |
|-------|-----|
| 담임 목사 | 이태한 |
| 부목사 | 이성철 |
| 부목사 | 이성훈 |

www.calvary.org.nz
www.youtube.com/calvaryorgnz
www.koreaniptv.co.nz

70 Khyber Pass Rd, Grafton, Auckland
(Ph) 09-369-5077 (Mb) 021-968-388
LTH-07@calvary.org.nz



해/외/한/인/장/로/교/회
갈보리교회
교회창립 1999 / 07 / 18

2019/10/20
21권 42호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디모데 후서 3:14

| | | | |
|-------------|---------------|----------|----------|
| 주일에배 | 1부 오전 11시20분 | 2부 오후 1시 | 인도:이태한목사 |
| 찬양 | ----- | | 주일 찬양단 |
| 예배로부름 | 시편 135:2-4 | ----- | 인도자 |
| ■ 찬송 | 43장 | ----- | 다같이 |
| ■ 신앙고백 | 사도신경 | ----- | 다같이 |
| 찬송 | 257장 | ----- | 다같이 |
| 대표기도 | ----- | | 김철재 집사 |
| 성경봉독 | 창세기 1:6-8 | ----- | 인도자 |
| 찬양대찬양 |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 ----- | 나무십자가찬양단 |
| 설교 | 물기운데궁창이 | ----- | 이태한 목사 |
| 찬송 | 305장 | ----- | 다같이 |
| 헌금기도 | ----- | | 인도자 |
| 교회소식 | ----- | | 인도자 |
| ■ 응답송 | 445장 | ----- | 다같이 |
| ■ 축도 | ----- | | 이태한 목사 |

■ 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십시오. 헌금은 들어오실 때 봉헌함에 봉헌하시기 바랍니다.

| | | | | |
|-------------|---------------|----------|---------------------------------|-----------|
| 수요예배 | 3여선교회 헌신예배 | 오후 7시30분 | 청년예배 | 오후 3시 15분 |
| 기도 | 김은희 집사 | ----- | 금주기도 | 홍진솔 자매 |
| 성경봉독 | 누가복음 9:57-62 | ----- | 다음주일 | 김규연 형제 |
| 특송 | 3여선교회 | ----- | - 매주 금요일 오후 6시에 청년부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 |
| 설교 | [예수를 따르려면] | ----- | | |
| | 이태한 목사 | ----- | | |
| 찬송 | 488장 | ----- | | |
| 주기도 | 다같이 | ----- | | |

[10/11월 기도 순서]
10월 27일 (주일) / 이광희 장로
10월 30일 (수) / 김선화 집사
11월 3일 (주일) / 박덕철 장로
11월 6일 (수) / 김영옥 권사

[10월 예배 봉사자]
예배 안내 / 김병진, 김명춘
새신자 안내 / 차영철, 심경순
주차 안내 / 민광호
주방 봉사 / 박제란, 김명옥, 박영선 A

이번 주는 중앙아시아 K국 강 나하르 선교사 소식입니다.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어떻게 지내셨는지요? 9월 4일에 한국에 도착했고, 며칠 전 시드니에 왔습니다. 날씨는 더웠다 추웠다를 반복하고 한국에서는 오랜만에 태풍의 위력도 경험했습니다.

서울 제가 있던 도시 A를 떠나 한국행 비행기를 타기 위해 AL 도시에서 이틀을 머물렀습니다. 일 년에 한 번 보던 팀 멤버들을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짐 개수 때문에 다시 짐을 싸야 했는데 몇몇 분들이 도와주시고 공항까지 함께해 주셨습니다.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서울에 있는 협력 교회에 며칠을 머물렀는데 모두가 크게 반겨 주셨습니다. 서울에 머무는 동안 새벽 기도, 금요 철야를 참석했는데 특별히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 안식년을 의미 있게 시작하는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부산 파송 교회에서 목사님과 장로님, 권사님, 고마운 분들과 인사를 나누고 교제를 할 수 있어 무척 감사했고 협력 교회에서 선교 보고를 하였습니다. 또한 WEC 부산지부 이사님들 식사에 초대되어 즐겁게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요양병원에 계신 아버지께 갔는데 저를 보시며 환히 웃으시는 모습이 계속 기억에 남습니다. 며칠 후 다시 찾아보았을 때 그동안 부은 발이 많이 좋아지셔서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점점 나이를 드시고 여기저기 아파하십니다. 그런데도 어머니께서 해 주시는 집 밥은 그 어떤 식당보다 맛있고 집에만 있고 싶어집니다.

친구들 여러 지방에 흩어져있는 친구들을 바쁘게 오가면서 만났습니다. 다양한 모양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친구들로 인해 늘 고맙고 감사합니다.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누고 때론 함께 기도를 하면서 여행으로 인해 몸은 피곤하지만 제 영혼은 도전받고 새로운 힘을 늘 얻습니다.

호주 지금은 호주입니다. 태국을 경유한 긴 비행 끝에 도착해서 며칠 많이 피곤했습니다. 친한 동생네(첫째가 희수, 희수네 집)에 있는데 사랑스럽고 고마운 가족들입니다. 2주 후에 해외에서 교육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를 준비하기 위해 조용히 부지런히 책을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배려에 감사드리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길 기도합니다. 나하르 드림

기도제목

- 1) 건강 (오른 발목과 왼팔 통증, 눈(원추각막) 검사와 하드렌즈)을 위해 운동에 힘쓰도록
- 2) 2주 후 교육 훈련이 있는데 (10월 23-31) 미리 책을 읽어야 하는데 모든 오가는 일정과 준비를 위해

1.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구주, 우리의 소망임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도록.
2.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며 말과 행함 속에 진실한 사랑이 넘치는 성도가 되도록.
3. 상황에 따라 요동하지 않고 삶의 고난에도 하나님을 바라며 흔들리지 않는 성도가 되도록.

신앙의 토대 주일반 1과 요약입니다.

2주 1일 / 인간은 선택의 자유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영광이지만 많은 특권 중 하나가 인간에게는 선택의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왜 선택의 자유를 주셨을까요? 진정한 사랑의 교제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선이나 악을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고 그 선택에 따라 생명과 복과 사랑과 화가 내 앞에 있습니다. 매 순간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아버지를 알고 신뢰하고 사랑하는 지혜로운 자녀인지 결정됩니다.

2주 2일 / 사탄은 인간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택의 자유를 사용해 하나님께 불순종한 천사들이 사탄입니다. 그렇기에 사탄은 인간도 자기처럼 하나님께 불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사탄은 아주 영리하여 빛의 천사처럼 나타나 거짓으로 우리를 속입니다. 우리는 사탄을 분별하기 위해 말씀을 읽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사탄은 우리를 속일 수 없습니다.

2주 3일 / 인간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죽을 것이라고 했으나 사탄은 먹어도 죽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습니다. 자기 욕심을 위해 사탄의 말을 선택한 아담과 하와의 죄 때문에 아담의 자손인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유혹하고 거짓말을 할 수는 있지만 강제로 시킬 수는 없는 것을 기억하며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2주 4일 / 인간은 자신의 죄에 대해 책임이 있습니다. 자기의 선택으로 죄를 짓게 되었음에도 다른 사람과 뱀의 탓을 하는 죄가 죄를 낫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죄에 대해 변명하고 죄를 정당화시키는 것을 돕습니다. 그래야 더 깊고 단단히 죄의 덫에 얽매이게 되고 우리도 자기처럼 선하신 아버지로부터 단절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관계를 원하시기에 선택의 자유를 주셨는데 우리는 살기 위해 생명을 택하기를 원하십니다.

2주 5일 / 죄의 결과는 심각합니다. 비록 사탄이 속였으나 죄에 대한 책임 즉 죄의 결과는 모두 내 것입니다. 죄의 결과는 참혹합니다. 나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아 나를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끊어지게 합니다. 즉 죄는 예수 그리스도도 아버지의 사랑도 그분의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주신 은혜도 모두 끊어지게 합니다. 회개하고 돌이켜 아버지 품에 거하는 자녀 되기 원합니다.

김자경 권사

창세기 1:6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